

한 시간 142 mm 물폭탄 ... ‘괴물 폭우’ 또 온다

광주·전남 곳곳 주택·상가 등 침수...농경지 유실·매몰 피해
기상청 5~7일 다시 천둥·번개 동반 폭우 예보...철저 대비를

광주·전남 지역에 보름만에 다시 ‘괴물 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관련기사 2·6·7면〉

밤 새 무안에는 최대 250mm 이상, 한 시간에 142.1mm가 내리는 등 ‘200년 만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린 탓에 침수 피해도 컸다.

4일 광주·전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산사태가 나고 주택·도로·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3일 오후 8시에 무안군 현경면 인근 소하천에서는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길을 돌리려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같은 날 담양읍 광주대교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함평에는 257.5mm의 폭우가 내려 함평천 인근 함평읍과 함평5일 시장 상가 등 주택 50가구와 상가 46곳이 물에 잠겼다.

또 담양·함평·무안·신안 주택 150채가 침수되고 함평지역 경사도가 유실되거나 파손됐다.

광주에서도 지난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방천 신안교, 운암동 운암시장과 공구의 거리 등지에서 상가, 주택에 또다시 물이 들어왔다. 광주시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도로침수(37건), 건물 침수(52건), 단수(32건), 등 149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했다.

전날 내린 비로 침수·붕괴 위험이 우려되면서 광주·전남에서 170여세대 230여 명이 대피했고, 하상 도로와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500여 곳이 통제됐다.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피해 신고도 빚발쳤다. 광주에서는 인명구조 14건, 건물 침수 79건, 도로장애 68건 등 총 1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에서도 인명구조 21건 27명, 인명대피 21명, 화재 1건, 안전조치 406건 등 모두 446건 피해가 발생했다.

닭 3만2000마리, 오리 5000마리, 돼지 246마리가 폐사했다. 함평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도 200

만 마리가 침수됐으며 농작물도 1003.5ha가 침수, 농경지 5.9ha가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산사태 경보(영광·담양)와 주의보(장성·함평·나주·무안·곡성·신안·화순, 광주)가 내려졌고 1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가 쏟아지며 광주IC·문충IC구간도 통제됐다 새벽부터 재개됐고, 나주대교 밑 제방도로 도로 침수로도 한때 통행이 제한됐다. 호남선 1개 노선이 전날 운행을 중단했다가 재개됐고 여수와 거문도, 모슬포와 마라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7척이 결항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무안 운남에는 257.5mm의 비가 쏟아졌다. 광주 197.5mm, 담양 봉산 196mm, 곡성·구례 성삼재 188.5mm, 함평 월야 187mm, 신안 압해도 175mm, 장성 상무대 147mm, 화순 백야면 119mm 등을 기록했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 공항 142.1mm, 광주 광산 89.5mm, 담양 봉산 89mm, 함평 월야 87.5mm에 달했다.

기상청은 태풍 꼬마이에서 약화된 저기압 수증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북쪽 건조한 공기와 서해상에서 충돌해 강하고 많은 비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남 서해안에는 국지 저기압이 발달, 무안 지역에 수증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는 5일부터 7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소나기 내린 뒤 6일 오후부터 7일 아침까지 남북간 폭이 좁은 강수대 영향으로 호우 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5일 오후 광주·전남에는 5~40mm, 6일에는 광주·전남북부 5~40mm, 전남남부 5~20mm의 비가 내리고, 6일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11일에는 다시 북쪽의 찬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해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집과 하천 사이 뺨 뚫린 벽

17일만에 극한호우가 다시 내린 4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상점에서 주인이 지난 폭우때 무너져내린 담벼락 너머 서방천을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농도 전남의 현안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尹정부 거부권에 폐기됐던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등도 가결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의결했다. 농도 전남의 현안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본회의의 표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사·도경찰청에 신설키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

국 사·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역시 이 대통령 지

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스톡킹 참극이 잇따른 데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또 침수 피해 ... 광주 신안동 가보니	▶6면
굿모닝 예향 - 남도투어 전남 아경 명소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완전체로 원정 12연전	▶22면

전라남도
Jeollanamdo

세계 일류 에너지 강국의 실현!
전라남도와 KENTECH이 함께합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 고출력·고에너지 시설(50만m²)
- 레이저 과학·산업 육성
- 대학·연구기관 통합연구구축

한국에너지공단

- ‘22.3월 개교(40만m²)
- 1,000명 / 에너지공학부 (대학원 600, 학부400)
- 에너지 5대 분야 중점연구

산학연 클러스터

- 대학·연구·직접(40만m²)
- 공동캠퍼스·연구소·산업벤처Zone
- 산학협력지원센터